

신년 특별기획 좌담회

일시 : 2022년 1월 6일 (목) 20:00-22:00

장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주제 : “20대 대선의 향방과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

토론자: 김영윤(사회), 전현준, 추원서, 김영란, 전봉근

참가자: 총 58명

-발제 내용 요약-

김영윤: 만약, 윤석열 후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후보를 내려놓고 전략적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힘과 전략적으로 합치면서 단일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현준: 제가 민주평통에서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입장이라 조심스럽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 일 것 같습니다. 이념과 이익이겠죠. 이념은 '보수냐 진보냐 중도이냐' 일 것이고, 이익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군사적 이익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념으로 본다면 보수와 진보는 팽팽한 것 같고, 이제 중도가 스윙보트가 되어 있는데 이들이 MZ세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30대들은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많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 문제도 경제적 이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선택을 하는지를 따질 것인데, 아마 지금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모두 공정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안철수 후보만이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87년 이후 한국정치를 보면 보수 10년 진보 10년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5년간 진보정부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는 야권의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10년 주기론에 따라 진보가 5년 더 집권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김영윤: 10년씩 정권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볼 때 진보측의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범 야당 후보 유리한 국면

전현준: 네, 그런데 여론조사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범 야당후보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으니 모든 후보들이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원서: 일반적으로 선거라고 하면 조직과 바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책도 중요

하겠지만 '조직'과 '바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전박사님이 말씀하긴 것처럼 소위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일종의 바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집권당은 조직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한국리서치 등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10% 내외, 심지어 오차범위 바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앞서 회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안철수 후보 관련 윤석열 사퇴에 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웬만해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사퇴까지 언급되는 것은 지나치게 나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힘은 내부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부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새로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적 역량 면에서 두 후보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잘 수습하여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준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시장부터 시작해 도지사를 거쳐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상당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역량이 상당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권 여당의 약점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민심을 얼마만큼 잡아나가고 보완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최근 부동산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 또한 과거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약 4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집권 말기에 이렇게 높은 지지도로 가진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이는 집권 여당의 홈그라운드 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의 제반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변수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 결국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다소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대선에 관해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가 많이 달라지고, 한반도 정세도 바뀔 수 있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대선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역량, 민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등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도 약점이

있고, 야당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교체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저에게는 궁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일화로 간다는 전제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보 없는 싸움될 듯

허인숙: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셨을 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보았는데, 이미 사퇴를 하셔서 협상력과 같은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이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냈고, 윤석열 체제가 여러 가지 난항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을 끌고 가야 하는 부분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보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선: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의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는 것이 오차범위 내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항목을 보면 단순히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성 언론의 여론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미 삼프로 티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30대가 삼프로 티비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진면모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20-30대의 지지도에서도 앞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권의 엄청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넉넉하게는 10% 작게는 5% 이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를 안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여당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를 의미할 수도

김영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도 정권교체가 아니냐, 기존의 부동산 문제 등에서 탈피해 민생경제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구의 김정수 교수님 손을 드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김정수: 저는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이후 전개될 여론의 지지도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두 사람의 지지도가 20% 중반과 10% 초반인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 간다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된다면 두 사람의 지지도가 약 20% 정도의 각축전이 되어야 하고, 야권이 분열되어 있을 때 필패라는 것이 둘 사이에 공감될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단일화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말하는 것은 속단하는 것 같고, 향후 전개될 여론의 지지도에 따라 단일화 유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의 여론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선거본부를 슬림화했는데 이것이 양날의 칼 같습니다. 수습을 잘해서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을 대하는 태도, 인터뷰 실수를 안하는 것, 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에서 무언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이는 이미지

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자신의 이미지로 버텼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공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서 보면 진영의 논리에 투표가 좌우되었다면 최근 20-30대 MZ세대들의 경우 과연 저 후보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등 맞춤형 공약들에 투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윤: 감사합니다. 오늘 어느 방송사에서 야권 대통령 후보 중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고 윤석열과 안철수를 놓고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서 대통령 후보의 역량 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낙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김정수 교수님의 이야기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 둘의 지지도가 비슷해진다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권을 교체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정권 심판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어떤 분이 또 말씀해 주실까요?

박중재: 어제 단톡방에서 선거 중 레임덕이 오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윤석열 후보는 현재도 검찰총장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일화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도 대단히 강하고, 안철수 후보도 자신이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당 대표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라고 52%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매우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목민관으로 지내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삼프로 티비에 나갈 때 유튜브가 무엇이지도 모르고 나갔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입장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윤: 안철수나 윤석열 후보 모두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모른다는 의견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야권의 강한 의지가 작동한다면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역량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월등하다는 평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되든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어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인지 전봉근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봉근: 우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북한 핵문제가 이대로 괜찮은지, 종전선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연구원이 그렇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서를 냅니다. 저도 고민을 하면서 썼는데, 작년에 2021년을 전망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도발을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북한은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도발을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둘째, 이미 지난 3년간 북한이 미국에 대해 새로운 셈법을 내놓아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 등을 2년여간 미뤘왔기 때문에 강한 도발을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서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방치하고,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는 의견이 1년 전 2021년에 대한 압도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북한이 전략적 인내를 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관여를 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제가 대충 맞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정세가 최소 반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왜 전략적 인내를 할 것이라고 보는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핵·미사일에 대한 과시를 충분히 다 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무섭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이미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한은 이미 수많은 제재를 받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더 많은 제재를 받을만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중관계 차원에서 미국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북한을 견제하는 중국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이유일 수도 있으나 북한이 전략적 인내를 하는 이유는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함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대화를 할 수 없어지자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 상황에서 도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연성 도발을 통해 북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실험을 통해 과시도 하고, 압박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느냐. 저는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대북 관여정책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클린턴, 카터 등은 대북 관여를 적극적으로 수행했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조차도 저는 방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오바마처럼 북한과 강력하게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북한이 국내적 상황으로 북·미간 대화할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냉전의 잔재인 쿠바, 이란, 미얀마, 북한과 수교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이 중 북한 빼고 모든 나라와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당시에 한국의 대북 강경책, 김정일의 건강 악화만 없었다면 북미 관계개선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NPT, 핵 이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내버려 둘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여를 시도했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북미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협변수, 도전요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이슈에 신경쓰기에는 국내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미간의 상황을 북한이 공을 넘겨받은 상황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탱고를 돌아서 취야하는 데 댄스 플로워에 둘 다 서로 먼저 나오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비유해볼 수 있습니다. 서로 눈치보며 버티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자신이 제스처를 취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공화당의 공격에 이겨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기회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22년에 큰 변수인 동계올림픽과 한국의 대선에 따라 북미 관계 등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에는 북한이 잠잠하게 지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정책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볼 때, 북한은 역량의 최대한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실험을 하지 않았을 뿐,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북한에 핵무기가 50여 개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매년 5-7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가 지속될 때, 5-7년 후 북한에는 100여 개의 핵무기가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 100개가 있으면 파키스탄, 인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의 타결은 바이든의 김정은 친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관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서로 눈치 보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먼저 이를 깨야 합니다. 제 생각에 북한이 먼저 이를 깨는 것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미국이 적극적 행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친서를 보낸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치고 북한에 친서를 보내지 않는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들어있는 네 가지 사항은 모두 미국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이 네 가지는 미국이 이미 북한과 합의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바이든이 이 네 가지 사항을 언급하면서 실무협상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서를 받은 김정은은 제 생각에 회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신이 온다면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고, 그 편지를 보내는 때부터 최소한 회담이 깨지기 전까지 북한은 도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서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깨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운: 예, 감사합니다.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게 보면서 기회는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날을 세우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미국이 결단을 내려서 친서를 보낸다면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전봉근 교수님?

전봉근: 일단 친서가 가고 북한의 회신이 있다면 군사합동훈련은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문제로 규모가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양보하는 모습, 대국이 자신에게 걸어들어오는 모습보다 더 반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편지를 할 때 회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또한 이루어질 것이고, 부수적으로 군사합동훈련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추원서 박사님, 혹시 나누실 말씀 있을까요?

핵 문제 해결 열차와 함께 남북경협 열차를 가동시켜야

추원서: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차기 대통령이 한반도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봉근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첫 번째는 비핵화 열차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열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경협 열차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다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볼 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듯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이 등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차기 대선을 마치면 되도록 빨리 비핵화 열차를 가동시키고, 남북경협 열차를 출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남한의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미국의 문제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중간에서 중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역할이 매우 큼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과 상생할 수 있는 카드는 남북경협카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든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이와 동시에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통령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미국의 제재조치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추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나와야

추원서: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여러 가지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북 제재로 남북간 대화를 하기조차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때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제재에 막혀서 그랬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고, 2010년에 5.24 조치를 취한 것처럼 출구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개성공단의 중단을 결정할 당시,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 임금

이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되는 것 마냥 발표해버렸습니다. 이는 근거도 없는 사안이고, 자본주의 원칙상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스스로 우리가 가진 카드를 버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역할이 좁혀져 버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차기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초당적으로 진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협력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역사를 돌아보면 집권당에서 이러한 의견을 낼 때, 야당에서는 판소리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 내 의회 등에서 이러한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 야당의 협력을 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낸 상태에서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영윤: 김영란 박사님, 이와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 측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국제적인 난제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한반도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북한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핵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법까지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또한 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남북경협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화하자는 취지로 말씀해주셔서 더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일 사안은 미중이 전략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취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익을 취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안미경중 상황에 처해 있는 독일, 일본, 호주, 대만 등의 나라와 공조해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김영윤: 김영란 박사님께서 대외 관계 중 미중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자 의견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박사님, 북한 전문가이신데, 우리가 당면한 해결과제인 남북문제, 한반도 관계 등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현준: 북한이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남이나 대외관계에 대해 굉장히 짧게 언급했습니다.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라고 표현한 것은 국제정세와 주변환경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와 대외 관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전술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논의했음을 밝혔습니다. 보통 북한을 생각할 때, 텍스트만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신년사 분석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면 거의 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수 차례 있었지만, 신년사에서 이를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이에 저는 context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북한의 8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입장은 앞으로 남한의 대선, 주변국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니 상황을 잘 지켜

보고, 자력갱생을 하면서 내부 문제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하는 듯 합니다. 현재 북한은 내부에 자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1차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대외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을 취할 듯 보입니다. 김정은 등장 이후 '잘살아보자'는 전략을 썼으나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를 해제해 자신들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수출해 돈을 벌어 자체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잘 살아보자는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은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남북관계 소강국명 지속

더 심각한 것은 잘살아보자는 전략을 쓰다 보니 사상난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사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북한은 더욱 대외 관계에 있어 폐쇄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유사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하면 미래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신앙적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사상통제를 시도합니다. 즉, 신앙적인 방법을 통해 사상통제와 현 상황 타개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북한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하거나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남한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외 관계 개선을 위해 도발을 하기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진보 후보에게 유리할지, 보수후보에게 유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도발을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정도의 제스처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소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김영윤: 전 박사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차 전원회의에서 대외관계에 대한 논의가 짧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현준: 한마디로 아직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그래서 북한도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전현준: 네, 자신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처해나가겠다는 것이죠.

김영윤: 그런데 이번에 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이유를 김여정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연습이라고 말입니다. 대선에 가까울 때, 이와 같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영향력과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사님께서서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을 하지 않을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전현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입장에서 남한의 보수, 진보 정부를 모두 대해 보았는데 보수 정부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었고, 진보 정부에 희망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으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문재인 정부 혹은 진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한 듯 합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상관없이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면 아무 것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에 어떤 정부가 들어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느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압박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입장에서는 남한의 대선에 영향을 끼칠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윤: 그렇지만 북한이 원하는 제안을 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전현준: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들어서다고 해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제안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2018-19년에 많이 느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매우 심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자괴감, 자책, 미국과 남한에 대한 불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영윤: 전 박사님은, 전망을 암울하게 보시네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은 상관없어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전현준: 네. 보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과 전면적인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진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파격적인 지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김영윤: 김영란 박사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충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란: 저는 대선 전후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봉위를 위해 싸워나가자고 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힘든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기싸움, 큰 판에서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거와 같은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2년이 김정은 공식집권 10년 차이이고, 김일성 탄생 110년, 김정일 탄생 80년 등 북한 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승리를 증명하는 정치 외교적 성취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북정책 방향이 정해질텐데, 이에 따라 **북한이 도발 등을 통한 벼랑끝 전술을 펼침으로써 남북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물밑 접촉을 통해 어떻게든 승부수를 던지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김정은과 쉽게 타협을 할 가능성도 낮고, 남북 협력에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어떤 계기가 생기면 반드시 카드를 던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박사님께서서는 북한이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도발 등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은 계획대로 신무기 개발에 전념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계획에 따른 발사가 어제 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현재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실망으로 한국 정부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극과 극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그 둘이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그 정부가 보이는 태도와 상황에 따라 자신 나름의 승부수를 던질 것이고, 자신이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추원서 박사님이나 전봉근 박사님 중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전봉근: 북한의 핵 무장 정책은 당연히 백프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이는 김정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닿는다면 북한도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전선언과 같이 미국이 얹혀 있으면 안됩니다. 경험도 좋은 인센티브가 있기는 하지만 군사안보 부문에 있어서 경험은 아직 시작될 수도 없고 설사 시작된다 하더라도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 안보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미국이 얹혀있는 문제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할 경우, 유엔사, 주한미군의 약화 등의 문제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중국과 전략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야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인 남북기본협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계약한 남북기본협정에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상호불간섭, 상호 존중 등 말입니다. 북한의 경우 동서독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두 개의 국가체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분리되어 상호공존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의 핵무장 동기 또한 약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평화체제 혹은 평화협정이 없는 북한의 비핵화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안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북미, 북일 적대 관계를 정상 수교 관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 북한의 비핵화 또한 가능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얹어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북미 수교도 10년은 걸릴테지만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만 해도 그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올해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0주년입니다. 30년 전에 만든 남북기본합의서와 문재인 정부가 만든 판문점 선언만 합치더라도 이미 너무 훌륭합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을 설득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전봉근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판문점 선언을 합쳐 남북기본협정안을 만들어 남북관계의 시동을 거는 것을 제안하신 거죠?

전봉근: 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이 일을 3개월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임기 말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도 그 과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전봉근: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안됐으니 오히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윤: 추원서 박사님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추원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남북관계에 남긴 유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신뢰가 그나마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차기 정부가 이 자산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기 정권이 어떤 정당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후보 보다는 훨씬 빨리 대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해야

남북관계의 고착 상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하노이 회담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탐다운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하면서 영변을 포기할 테니 민생관련 제재 일부를 해제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비핵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강경책 또한 밀고 나갔더라면 지금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던 때에는 분명히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남북 접촉이 불가능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 없이 정권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 대선 관련 이와 같은 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는 차기 정부가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한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여당 정권이 당선되는 것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에 다소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마지막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돌아가면서 1분씩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질문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한미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자들이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봉근: 미국의 대한국정책은 한국을 대중전선에서 자신의 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외교, 안보, 정치, 경제적 자산이

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우리에게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자산입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할 때 한국은 이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한중 동반자 관계 또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일관된 균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애매모호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분명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양국과의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면서 이를 대외원칙으로 삼을 때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현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남북관계를 잘 해냈습니다. 특히, 미국을 설득해냈고, 이를 통해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은 우리나라의 가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미국이 우리를 대등한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동맹이라는 것이 대등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은 힘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하위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북 제재수단 등의 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동족이 우리를 무시하고, 동맹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관계로의 동맹을 맺지 못한다면 북한을 설득할 수 없고,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면 미국이 또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동등한 동맹,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위하는 동족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김영윤: 그렇다면 전봉근 박사님,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한미 불균형 관계를 계속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관계로 관계 재정리를 하면서 동맹을 발전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한미동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봉근: 저는 미국이 필요한 부분, 다시 말해 세계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우리의 필요로 제공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제약도 많습니다. 다양한 군사활동, 한국의 산업역량 등의 이슈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윤: 네, 좋습니다. 추원서 박사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원서: 전봉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이 발의한 여러 가지 제재의 압박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차기 우리 정부가 구성된다면 강력하게 미국에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다양한 경제적 이슈 중 하나만이라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는 근거를 들이 대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노는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곳이 필

요합니다. 그러한 하나의 출구를 통해 남북 협력을 보여줄 수 있고 더 나아가 미국을 다시 한번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 문 대통령을 대미, 대북특사로 활용

또한 차기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을 특사로 활용해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북한을 설득할 때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을 활용해 대중군제를 해야 하는데, 한국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으므로 이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은 한미 간 협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는 상관 없으므로 이를 보장해주고, 대신 한가지 양해를 얻어야 할 것이긴 합니다. 한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과 맞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상황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는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외면하기 어렵지만, 사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중군제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밝히며 미국에 이해를 구하고, 대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 또한 미국이 세계의 곳곳에서 가지는 어려움들을 함께 거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안심시키면서 설득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지도자가 가끔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부의 자주성과 강단을 믿고 남북 활로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윤: 열정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란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란: 이 문제와 관련해 북·미관계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서둘러 단일문제로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의 한 부분으로 접근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무조건 북한 이슈를 방기하거나 강대강 전략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끄는 전략을 통해 남북한을 상대함으로써 김정은을 초조하게 만들고, 한미 간 갈등 또한 우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미국을 잘 설득해서 원하는 것들을 최소한 하나라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정섭: 저는 질문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왕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사건은 안보 무능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보 무능을 인정하고 5.24조치를 해제해야 민간 영역의 다양한 교류를 북한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통일 담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24조치와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실효되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없애주었으면 합니다.

김영윤: 남북관계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정수: 미국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토론자 네 분이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게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할 지에 관한 내용들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문제만 미국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미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통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경우 동맹을 강화해 대중국 압박전략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속절없이 그 피해를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또 다른 니즈는 북한이 미국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다시 말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미국에게 더 이익인지 혹은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를 파악해 미국이 스스로 대북한 제재를 풀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UN제재에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간혀있는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의 필요를 캐치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냄으로써 우리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윤: 미국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정수: 네. 즉, 북한제재를 푸는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을 중국 편에 두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일지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일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면 제재를 푸는 것이 미국에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아주 신박한 논리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김정수: 저는 전봉근 박사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기본협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을 배제하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9.19 공동성명 등의 내용들이 이미 있는데 그 내용에서 더 진전될만한 것이 있는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언론에서 보면 한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문이 만들어졌다고 두루뭉술하게 외교부 장관이 말했는데, 합의 후 단계는 북한을 접촉해야 할텐데 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허인숙: 김영란 박사님이 새로운 다자질서를 활용해 한국이 동북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강조해 주신 듯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국제 외교질서와 북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을 정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UN 제재 및 미국의 입장은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막강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한국을 총알받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는 한국을 결코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처한 현실은 미래에 중국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외교와 세계질서라는 큰 틀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은 틀이지만 남북관계에서 뭔가 도출을 해야만 우리 민족이 통일을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토론자분들이 하신 말씀 중 MZ세대가 대선의 스윙 보트가 된 상황에서는 국내적으로 통일 일을 지향하는 단체 등이 그들에게 나서서 호소문을 발송하고, 그 정당성을 통해 설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투표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창출, 또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마스터 플랜을 구체화 시켜야 하고, 외교부의 계산법과 통일부의 계산법 등이 따로 가는 상황에 대한 메뉴얼이나 국내 선거를 앞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즉, 바뀌지 않을 혹은 바꿀 수 없는 국제정치의 틀보다는 국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남은 3개월 동안 구체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의를 하는 장이 오늘 우리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허인숙 선생님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하고 김종수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전봉근 박사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봉근: 우선 남북 기본 합의서는 30년 전에 만들어져 너무 올드하고, 유아무야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문점 선언은 의미가 있는 선언이나 법제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에서 국회가 비준을 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동서독이 거쳐왔던 수순을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한을 잠정적 2국 체제로 만들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 종전선언 합의문이 만들어진 후 진전상황에 대해 물어 봐 주셨는데, 저는 전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동안 북한의 요구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 새로운 썸법을 내놓으라, 자기들이 이미 했던 선제적이고 주동적으로 시행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내놓으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준 후에 한미 간 합의를 북한에 던질 때 북한이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새해 첫 온라인 좌담회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저의 생각은 지난 세월을 살아왔고,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쾌한 해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만 공식적으로는 여기에서 2022년 새해맞이 특별기획 온라인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